

2015-2017 칭다오액션플랜

1. 서 문

1.1 2015 년 12 월 19 일부터 20 일까지 제 7 회 한·중·일 문화장관회의가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되었으며, 이번 회의에는 류수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부장, 김종덕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요시이에 히로유키 일본국 문부과학성 부대신(이하“3 국”이라 한다.)이 참석하였다.

1.2 3 국은 지난 두 라운드의 한·중·일 문화장관회의 개최가 3 국의 문화교류와 협력 강화에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, 개최 도시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다. 3 국은 새로운 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역대 회의 정신을 계승하며, 문화를 통해 도시를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로 결의한다.

1.3 3 국은 역대 회의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구체화하고 향후 3 년간 한·중·일 3 국 간 문화 분야의 교류와 대화를 기획하고,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, 이 액션플랜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통과시킨다.

2.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통한 문화교류의 심화와 발전

2.1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선정과 관련 문화사업의 개최는 3 국의 지방도시가 국제문화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선도하였다. 또한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새로운 채널을 개척하였으며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였다. 3 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계속 선정하기로 합의한다.

2.2 3 국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 이래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은 확실히 심화되고 있다. 3 국은 향후 동아시아문화도시 간의 협력 촉진을 위한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지지하며, 이를 통한 3 국 도시 간의 소통과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교류 실현에 동의한다.

2.3 3 국은 중국 닝보 시, 대한민국 제주도, 일본 나라 시를 2016 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하며, 2014 년, 2015 년 및 2016 년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도시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.

2.4 3 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가 본국 및 동아시아 문화에서 우수한 대표성을 지니며, 독특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. 3 국은 도시들의 자발적인 대외교류를 장려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들의 국제교류, 특히 아세안문화도시와의 교류를 지지하고 촉진한다. 3 국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럽문화도시의

발전경험을 적극 참고하여 아시아와 유럽도시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다문화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하여, 문화가 도시의 건설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명 간 교류와 융합을 촉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.

3.“한·중·일 예술제”

3.1 3 국은 한·중·일 예술제가 3 국의 오랜 전통과 현대의 창의적인 고전문화예술콘텐츠를 대표한다는 것을 재차 표명하고, 아울러 기존에 개최된 3 회의 한·중·일 예술제가 아시아문화 공동의식을 심화시키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.

3.2 3 국은 『상하이 액션플랜』중 ‘한·중·일 예술제’역외 개최와 관련하여, 한·중·일 문화교류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의 한·중·일 문화협력의 성과를 표출하고 3 국 문화의 공동체 의식을 한층 더 응집해야 한다는 내용에 주목하였다. 3 국은 역외에서의 ‘한·중·일 예술제 개최’가능성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에 동의한다.

4. 문화산업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

4.1 3 국은 21 세기에 진입한 이래, 국민들의 수요가 다차원화·다양화됨에 따라 문화산업을 강력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.

4.2 3 국은 문화산업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. 문화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발전의 근간인 저작권보호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.

4.3 3 국은 인터넷 등 새로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흥업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3 국의 문화산업 협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3 국 호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다.

5. 문화예술분야 및 문화기구 간 교류

5.1 3 국은 문화서비스시스템이 전 국민의 문화예술 창작과 감상 및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의 기초이자, 문화융성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전제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.

5.2 3 국은 문화서비스분야에서 교류와 대화를 강화하고 상호 학습하여 문화가 국민의 생활에 스며들고 핵심 가치관과 공동의 정서를 육성하여 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한다.

5.3 3 국은 한·중·일 국립박물관 간 공동연합전시 관련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.

5.4 3 국은 3 국 간의 인문교류 및 문화교류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3 국 문화기관 간의 더 많은 대화 및 교류협력기제의 구축을 지지하고 장려한다.

6. 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

6.1 3 국이 경제고속발전 속에서도 계승해온 풍부한 유·무형문화유산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. 따라서 3 국은 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문화유산 보호를 병행하며 자연재해 극복의 경험을 발휘하여 세계문화유산계승과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는 것에 의견이 같이한다.

6.2 3 국은 무형문화유산이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(以人爲本)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, 대대로 전승되는 전통문화형식으로 인류의 진귀한 자산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.

6.3 3 국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으로 무형문화유산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역사성과 정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서 부단히 혁신하여 문화다양성을 촉진하고 인류의 창의성을 북돋운다는 것에 동의한다.

6.4 3 국은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각 국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진행하는 연구, 훈련과 정보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지지한다.

7. 3 국 청소년 간 교류 고무 및 지지

7.1 3 국은 청소년들이 미래 3 국의 대화와 협력의 주인공이며 3 국 청소년교류 강화와 추진이 3 국의 선린우호 정신의 전승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.

7.2 3 국은 3 국 청소년 간의 소통과 이해증진을 위해 기회를 마련하고 지혜를 모으는 등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한·중·일 청소년의 문화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무하고 지지할 것에 동의한다.

8. 문화의 힘으로 사회문제 해결

8.1 현대사회에서는 고령화,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, 사람들 간의 더 많은 소통과 위로가 필요하다. 문화교류는 사람들 간의 영혼을 이어주는 유대이며, 문화적 역량은 사물의 내재적 힘으로 나타나며 끊임없는 축적을 통해 긍정적 에너지로 방출되는 무형의 원동력이다.

8.2 3 국은 문화 역량을 이용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분위기를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형성시키며,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.

9. 기타사항

9.1 3 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, 한·중·일 예술제, 한·중·일 문화예술교육포럼, 동아시아문화교류사절단 등 역대 장관회의의 성과가 한·중·일 3 국의 문화교류 심화 및 실질적인 협력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으며, 앞으로도 위의 성과들을 계속 시행한다는 것에 동의한다.

9.2 3 국은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·장애인올림픽, 2020 도쿄올림픽·장애인올림픽 및 2022 년 북경동계올림픽·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공동 협력하여 세계인에 매력 넘치는 동아시아문화를 보여준다는 것에 동의한다.

9.3 3 국은 2016 년 제 8 회 한·중·일문화장관회의의 한국 개최를 결정한다.

본 실행계획은 2015 년 12 월 20 일 중국 칭다오에서 체결한다. 본문은 중국어, 한국어, 일본어로 작성하고 각 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.